



서울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정원 및 산책로. / 정연우 기자



서초그랑자이 석가산과 휴게시설. / 손진영 기자

‘피톤치드 뽐뽐’ 집 앞 푸른 숲, 신선 안 부럽네

아파트의 미학(美學)

<19> 서초그랑자이

회색빛깔의 고층빌딩이 늘어선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숲에서 진짜 숲을 발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이 주인공이다.

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옛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9개동 1446가구 규모로 지난 달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방문한 서초그랑자이는 새 집으로 이사 오는 입주자들로 한창 분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인공폭포, 분수, 석가산 등을 비롯한 수경시설이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했다. 도심 한 복판에 이런 주거환경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서초그랑자이는 동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스카이워크 등 복도가 설치돼 마치 몸속을 순환

하는 혈관처럼 단지 곳곳을 산책하기 좋게 설계됐다. 이 복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필로티 아래는 자연스럽게 그늘막이 형성돼 테이블과의자가 놓여 있어 더위를 피하기 좋다.

구대환서초그랑자이 조합장은 “나무가 많고 동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며 “필로티가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를 산책하거나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됐다”고 전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서초그랑자이는 ‘숲’과 ‘길’을 테마로 단지 전체를 숲속 갤러리 정원처럼 조성했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2.5배 크기의 공원인 ‘엘리시안 야드’가 조성됐는데 푸른 잔디밭

과 함께 소나무와 팽나무 등 녹음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들로 가득했다.

구 조합장의 안내에 따라 단지 내 정원을 탐방했다. 폭포에서 시작된 수로는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마치 자연 속 계곡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나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비롯해 단지 곳곳에 이색적인 디자인의 미술작품이 많아 포토존으로 안성맞춤이다. 조형물이 붉은색과 같은 원색 위주로 디자인됐다는 점도 이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게

지하 4층~지상 35층, 9개동 동 전체, 필로티 구조로 제작 ‘숲속 갤러리 정원’처럼 조성 축구장 2.5배 크기 공원 마련 ‘자이팜 가든’서 농작물 재배

구 조합장의 설명이다. 단지 내 정원이 라기 보다는 데이트코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밖에 서초그랑자이 외곽에는 텃밭인 ‘자이팜 가든’이 있어 재배한 농작물을 즉석에서 섭취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은 호텔 리조트를 연상하게 할 만큼 대규모

로 고급스럽게 조성됐다. 초대형 스크린이 장착된 수영장장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을 비롯해 운동 후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와 라운지가 조성됐다. 입주민의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4실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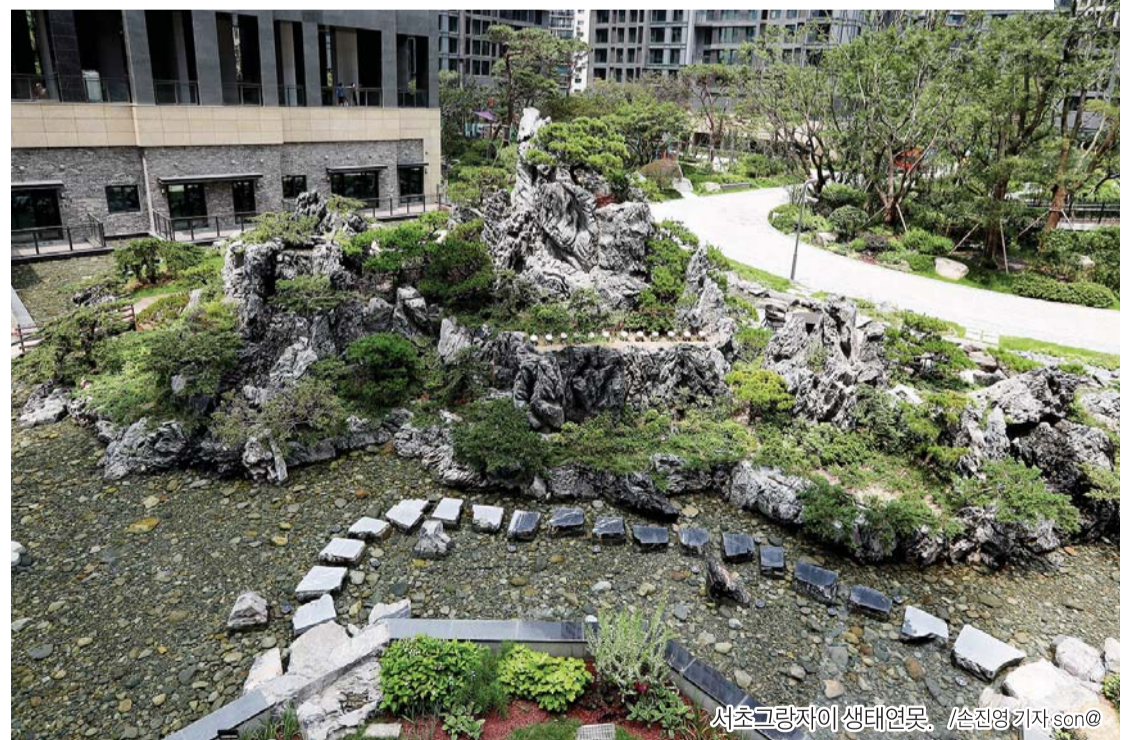
102동 최상층인 35층에 별도로 마련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크루브 카페’도 돋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이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강남의 화려한 도시 전경은 물론, 우면산과 양재 시민의 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한눈에 담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남산과 인왕산이 보인다.

한편 국내 최초로 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CGV SALON 영화관이 있다는 점도 이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다. 단지 내 상가와 연결된 선큰플라자 하부에 위치한 CGV는 26석의 상영관 하나와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입주민 또는 입주민이 동반한 외부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서초그랑자이에 설치된 나무형상의 조형물. / 손진영 기자



서초그랑자이 생태연못. / 손진영 기자 s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코로나19 확산에 내주 TV토론 일정 취소 / 사진 뉴스스
▲ 4선 우원식,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말한다



▲ 여배우 스캔들 질문 놓고 이재명·정세균 ‘으르렁’ / 사진 뉴스스
▲ 공군 ‘성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군 검찰은 통폐합

▲ 노동조합비 빼돌린 현대제철노조 전간부들 법정 구속
▲ 서울시, 6·25 용산대폭격 영상 첫 공개… ‘7월16일, 용산’ 기획전시